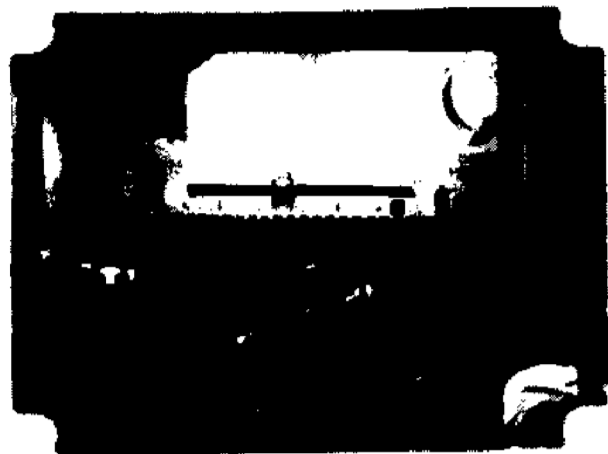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과 지역사회 개발



▲ 올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기념행사로 열린 '친환경농업 국제학술컨퍼런스'의 개최식에서 김성훈 전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피터 로젯(멕시코 지역연구 네트워크)은 소규모 농업은 규모화된 것보다 단위면적당 생산력은 월등히 높고, 토양과 자연자원 등 생물학적 다양성보존·토양 개선과 침식방지 등의 기능이 있어 농촌 생태환경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명환(울진군청 과장)은 울진군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학교급식조례 실시, 민간인증기관·유기농업연구소 설립,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고소득 복지 농어촌으로 탈바꿈을 기대하고 있다고 피력했고, 울리히 함(독일 카셀대학 교수)은 유럽에서 유기식품을 취급하는 조직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소들은 지역 이미지, 유기 생산품의 시장규모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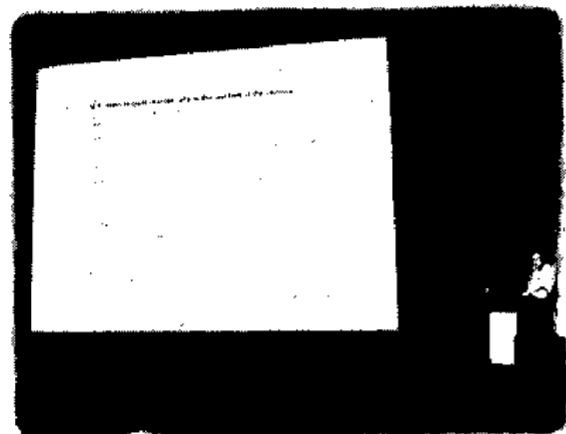
또한 내부 요소에서는 조직체의 뚜렷한 목적과 시장 적응능력 및 거래방식, 재정적 능력, 공급자와 소비자 그리고 다른 조직체들과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망, 시장여건에 따른 신속한 변화, 조직체의 단결

### 덴마크, 유럽의 유기농업 인력양성 방안 독일, 유럽 유기농산물 마케팅 전략 소개

력, 조직체 경영 능력 등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크리스티안 허게트(덴마크유기농업대학 학장)는 덴마크의 유기농업대학은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우선 3년간 과정의 농장 실습과 이론적 교육을 하고 경제와 경영 관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교육, 유기농민과정을 이수한다.

이 과정을 완료하면 숙련된 유기농민들의 졸업뿐만 아니라 녹색창업장, 숙련된 농민 수료증을 발부 받는다. 이런 과정은 아이디어와 새로운 혁신들을 같이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멕시코의 피터로젯 소장이 "글로벌시대의 유기농업과 농촌지역개발의 필요성과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 어디까지 왔나?

### 김완배 교수, 친환경물류센터 조성 전문매장 확대 시급성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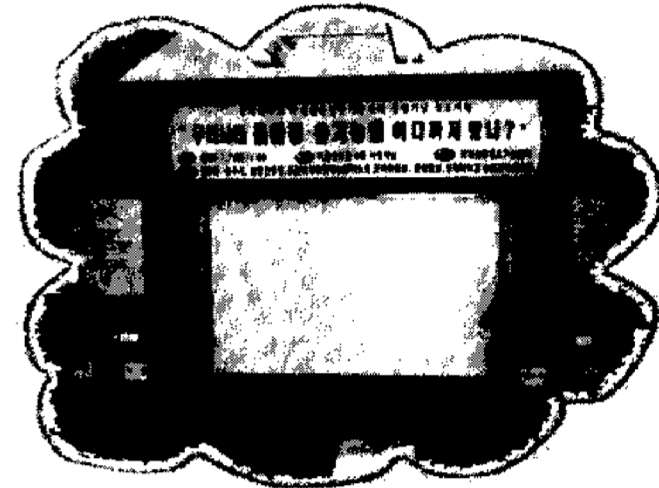
그리고, 김완배(서울대 교수)는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를 위해 친환경물류센터 조성하고 전문매장을 확대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친환경유기농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국내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한 심포지엄이 국제친환경유기농업센터 주최로 지난 7월7일 관련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지대학교 학생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손정수(농진청장)는 기조발표에서 농촌진흥청은 친환경농자재 개발·보급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박창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은 민간인증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2010년까지 50여개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상집(강원대 교수)은 유기축산 실천이 아직 불모지인 우리에게 한국형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상지대 국제친환경유기농업센터 주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열린 토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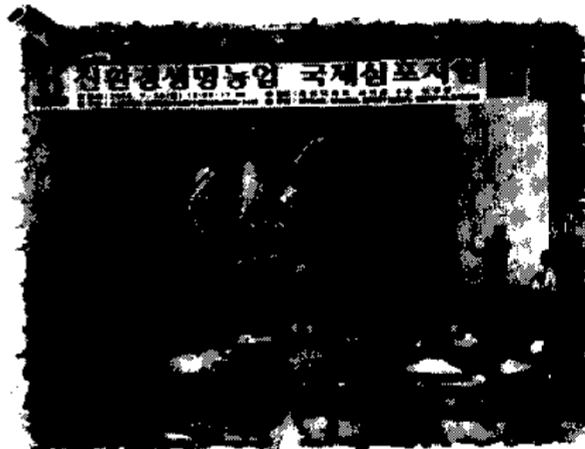
## 조선대, 친환경생명농업 국제심포지엄 개최

### 권광식 교수, 기업농 중심 농정은 농촌애체 불러 친환경농업 성공 열쇠는 구시대 농업관 전환부터

지난 7월25일 조선대 대강당에서 개최된 '친환경생명농업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유기농업교육협회 대표인 권광식 교수(조선대)는 "농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되찾고 '친환경농업'으로 곁포장만 바뀌어서는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소득지상주의의 허상을 버리고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친환경농업(생명농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교수는 "농업부문의 희생 위에 한국경제는 외양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나, 지역간·계층간 빈부격차와 사회갈등, 식량자급률은 2004년 현재 세계최하위권인 27%, 쌀을 제외하면 겨우 5%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존의 농업관과 농정의 반성으로 생명·환경위기시대의 첫번째 과제인 농업관과 의식변화에 기초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이어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며 "국민적 요구에 의한 농업은 생명농업에 충실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먼저 토양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베르와드 가이어(IFOAM 대외협력국장)가 "유기농업의 기술적 효과 등면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 지렁이를 이용한 환경보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 지렁이의 의의를 활용과 유기농업 이용 등 지렁이를 사용한 다양한 활용법 소개

지난 7월27일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기념으로 울진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제7회 지렁이를 이용한 환경보전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지렁이가 의의를 등으로 활용한다는 등의 다양한 주장들이 재기의를 관심을 끌었다.

이날 연세대학교에서는 인도의 공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 관련 국의 전문가와 함께, 농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했고 대전에 베르와드 교수는 "재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주제로 "지렁이를 이용한 환경보전 국제심포지엄"이 대안 회의장이 "변천로를 이용한 유기농업 이용 사례"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필리핀 지렁이 연구소 지도 소장의 "필리핀 지렁이 이용기술" 인도 필리핀 대학 라이다, 케일 교수의 "인도 지렁이 기술 활용" 중국 북경대 김광산 교수의 "중국 지렁이산업의 현주소" 등 논문이 소개됐다.

특허 제 0280579 호 ※영업직원 및 대리점 모집

### 벼,상추,콩,전디,과수,근채류 등 기비 및 추비로 가능

★기능성 부산물비료 출시  
중수효과·병충해방지효과 탁월

순수한 부산물비료로  
비비입상화 성공,  
화학비료는 이제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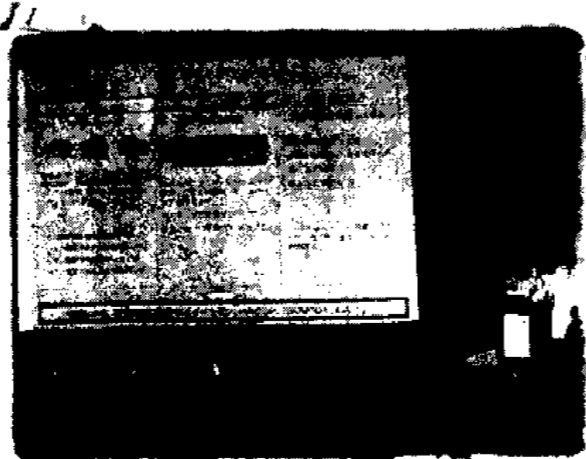
토비비료는 산인 자원부가 품질을 인증한 1등급 비료입니다.  
(GR M 9001-2000)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건업리 426  
전화: 031-797-0808~9  
팩스: 031-797-0008

### 유기제비 전용비료 출시

### 일본, 제후시스템 및 유기농산물 유통활성화 사례발표 스위스, 경중·양축연계 자연순환형 유기농업모델 제시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기념으로 열린 한국유기농업학회 주관의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 국제학술컨퍼런스에서 도꾸에 미찌야기(일본 IFOAM-JAPAN 전회장)는 일본에서는



▲ 일본의 도꾸에 미찌야기 발표자가 일본의 '제후시스템 및 유기농산물 유통활성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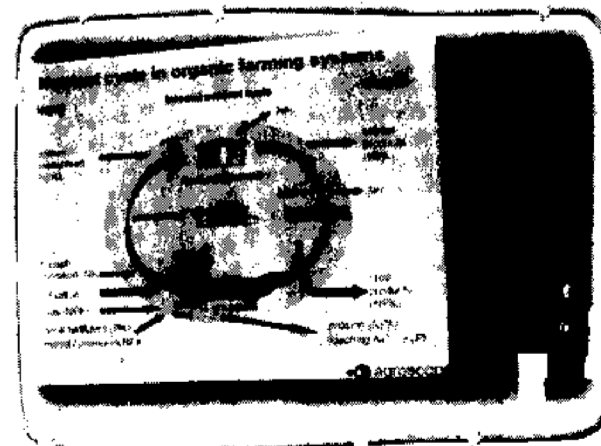
## 친환경농업과 기술개발

1999년 JAS법에 의한 '유기농산물인증제도'를 제정해 제3차 인증을 받은 것만 유기농산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3년에는 '특별재배농산물표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으나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유기 JAS법은 표시에 관한 제도로 유기농업 추진과는 그 취지가 달라 일본에서는 근본적인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형원(KIBC 대표이사)은 농산물 안전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미생물농약은 화학농약의 대체효과 뿐만 아니라 향후 병해충 예방 및 방제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첸 마이어(스위스 박사)는 온작을 할 때 필요한 질소를 충족시키려면 축산중심의 농업보다 항상 더 많은 양의 질소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질소 관리에 더 많은 전략적 기술이 필요하다. 질소부리퇴적은 질소 균형개선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므로 한층 더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베르와드 가이어(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대외협력국장)는 유전공학은 살아있는 것들을 단순히 생산의 요소로 다루며 그



▲ 스위스의 조첸 마이어 박사가 '경중·양축연계 자연순환형 유기농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것들은 기계인양 재조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유전공학은 유기농업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기존의 농업에 대한 유전공학적 응용은 그 자체에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농업과 식품에서 유전적으로 조작된 물질과는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유전공학이 유기농업기준의 규율하에 엄격히 금지된 이후로는, 조작의 위험이 감소된 공인된 유기농식품을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제공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